

“주민과 소통하며 약자 위한 생활정치 주력”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의정대상’ 선정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로...그간 13차례 수상 전국 최다 반열

“지역 주민과 약자를 위해 지방 정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옥수(사진 왼쪽) 광주 서구의원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한 정명(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기초의원 등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를 발굴해 공을 치하하고 널리 알려 기리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2007년부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서구 주민을 위한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통한 배상 지급

을 이끌어 낸 점 ▲백마산 승마장 허가 취소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해 허가 취소와 계획 변경을 끌어낸 점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더불어 ▲중앙공원 유적 발굴 관련 자료 공개 및 추가 발굴 실행 촉구 ▲풍암호수 매립 계획 철회 및 원형 보존 ▲서구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유치 문제 등 구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0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사, 연구원, 사회단체 등이 주관한 의정활동 관련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통령 표창,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



정, 호남을 빛낸 인물 대상 등을 비롯해 올해 정명대상까지 총 13회 수상으로 전국 역대 최다 수상 의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수 의원은 “‘정직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정명대상을 받아 매우 기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그간 구민의 민생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방정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성혁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전남과학대에 쌀 기부

농협 곡성군지부는 “최근 전남과학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곡성쌀 소비 촉진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쌀 전달은 전남과학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 운동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과학대학교는 전달받은 쌀을 학교 구내 식당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시험기간에 쌀떡을 만들어 학생들 간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영양 가득하고 맛 좋은 곡성쌀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건강을 위해 아침밥은 꼭 챙겨먹고, 쌀 가공식품에도 많은 관심과 소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광주매일신문 ‘지역신문 변화’ 주제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22일 본사 교육실에서 업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신문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사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종식 경기일보 이사가 초청돼 지역신문 산업의 현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최 이사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 삭감, 인터넷 언론 난립에 따른 광고 단가 하락, 대형 광고주들의 지역신문 외면 등으로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매출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성화된 조직을 정비하고, 다변화된 광고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 제작 위주의 조직을 유연화하고, 기자(주재기자)의 고령화에 대응하며, 젊은 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또한 “광고(홍보) 플랫폼을 효과 기반으로 개편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철 전광판, 버스 등 외부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며 “페스티벌, 마라톤, 걷기 대회 등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확대해 지역신문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진기자



전남개발공사,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 4호점 준공

전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에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최근 담양군 고서면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공헌 활동은 안전 구급함 지원, 연탄 나눔, 주거시설 개보수 등으로 양 공사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협력 활동의 핵심은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다. 행복동행하우스는 개발공사만의 역량을 활용한 주거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대상자는 재난·재해 가구, 저소득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담양군 고서면에 4호점을 준공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상생 발전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 양 개발공사가 지속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 농어촌 체험 ‘전국 최우수’

전남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도 길은푸르미마을이 전국 최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번에 위치한 길은푸르미 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받았다. 11실의 숙박시설과 교육관, 잔디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췄다.

이번 평가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영농, 어촌 체험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남도국악원(진도·홍) 국악 체험, 진도 홍주 만들기, 울금을 활용한 특산물 요리 체험 등을 통해 진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 알선과 주민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조청년인민국장은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느끼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자치경찰위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파트너십 데이’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 근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더 좋은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근네이버스가 주축이 돼 지난해 1월 설립한 광주시민의 독자적인 민·관 통합 치안복지 네트워크다.

이번 행사는 올해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 범죄 관련 사회적약자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경과 및 우수 사례 보고, 표창장 수여, 티움 멤버십 위촉,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퍼포먼스, 김미경감사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기관·기업·시민들이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며 “희망티움 통합



지원단과 함께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안전 가득 행복 광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지역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티움 멤버십을 위촉,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들어 광주다움 통합돌봄 기관, 광주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한층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수희기자

구례우체국,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구례우체국은 “최근 직원과 가족 일동의 정성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구례군과 우체국 간 협력 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총 17명의 직원과 가족의 참여로 이뤄졌다.

구례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희영 구례우체국 총괄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영 총괄국장은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상생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구례우체국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구례우체국의 따뜻한 지역 사랑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례=임종길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최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봉산동 계장골목을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쓰레기 배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홍보했다.

여수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안내문 등의 배포와 함께 배너 게시를 통해 쓰레기 배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리배출이 필요한 품목과 잘못 배출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깨끗한 여수



는 모든 시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쓰레기 배출 규정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목포해경, 암태파출소 청사 준공

목포해양경찰서는 24일 “지난 21일 신안군 암태면 암태파출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안경찰청장, 신안소방서장 등 외부 인사와 목포해경 경찰관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정재우 암태파출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업무 유공자 대상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축사, 준공 기념 퍼포먼스(부처 버튼 누르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암태파출소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1일 암태파출소로 개칭했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배에 달하는 1천120km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건의 해양사고 대응, 100건 이상의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의 해양 범죄를 검거하는 등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들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목포해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소방, 전남도립대서 직업 체험 교육

담양소방서는 “최근 전남도립대학교가 추진한 지역협력공유회에 참여해 지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험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소방 관련 직업을 이해하고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은 ▲소화기(연기) 사용법 및 CPR 실습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비 시연 ▲원강기 사용법 교육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 등이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진로 체험 교육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소방에 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